



미 증시, CPI 발표 앞둔 경계심리 등으로 보합

미국 증시 리뷰

8 일(월) 미국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10 년물 국채금리 상승, 금 가격 상승 등 위험선호심리 위축되며 보합 마감(다우 -0.03%, S&P500 -0.04%, 나스닥 +0.03%). 업종별로 부동산(+0.8%), 경기소비재(+0.7%), 유틸리티(+0.6%) 강세, 에너지(-0.6%), 헬스케어(-0.4%), IT(-0.3%)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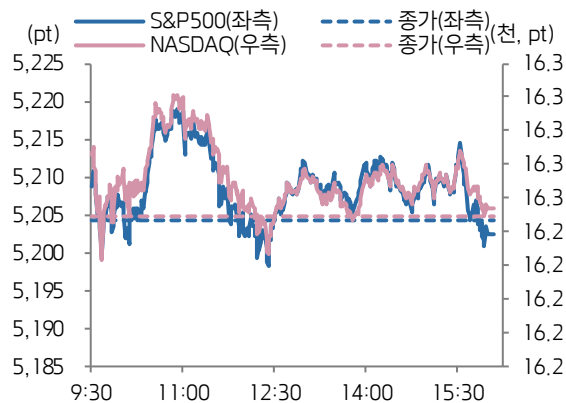
3 월 뉴욕연은 소비자대지수 1 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3%, 3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 월 2.7%에서 3 월 2.9% 상승. 5 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월 2.9%에서 3 월 2.5%로 하락. 1 년 후 식료품, 휘발유, 임대료, 대학 및 의료 비용이 2 월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지만 1 년 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6개월 연속 3%로 안정적으로 유지.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체이스 회장이 연례 주주 서한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끈적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망. 또한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이 최저 2%에서 최고 8% 이상의 금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된 수입품으로 미국의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의 과잉생산 등을 중국에 경고,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인위적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멕시코, 필리핀 및 기타 신흥 시장의 동맹국들의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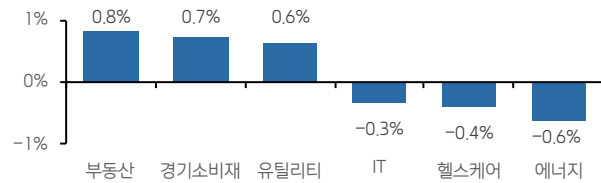
테슬라(4.9%)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 월 8 일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 미 정부는 TSMC(1.66%)에 66 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최대 50 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 등 총 116 억달러(15 조 7000 억원)에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주가는 강세, 당초 예상됐던 50 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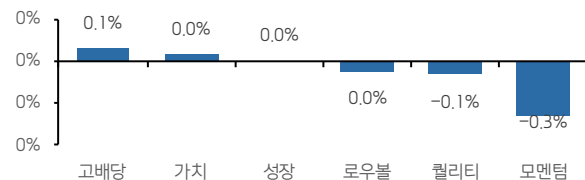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17.65	+0.13%	USD/KRW	1,353.13	+0.03%
코스피 200	372.51	+0.25%	달러 지수	104.12	-0.17%
코스닥	860.57	-1.34%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415.53	-1.02%	USD/CNH	7.24	+0%
S&P500	5,202.39	-0.04%	USD/JPY	151.78	-0.03%
NASDAQ	16,253.96	+0.03%	채권시장		
다우	38,892.80	-0.03%	국고채 3년	3.377	+4.7bp
VIX	15.19	-5.24%	국고채 10년	3.487	+5.2bp
러셀 2000	2,073.71	+0.5%	미국 국채 2년	4.789	+3.8bp
필라. 반도체	4,825.39	+0.13%	미국 국채 10년	4.420	+1.8bp
다우 운송	15,934.21	+0.09%	미국 국채 30년	4.550	-0.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5,046.05	+0.62%	WTI	86.56	+0.15%
MSCI 전세계 지수	778.04	+0.2%	브렌트유	90.38	-0.87%
MSCI DM 지수	3,408.57	+0.18%	금	2356.2	+0.22%
MSCI EM 지수	1,049.16	+0.33%	은	27.95	+0.51%
MSCI 한국 ETF	66.24	+0.21%	구리	429.3	+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2.2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10일 휴장 기간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 가능성 2.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출시 소식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은행, 자동차 등 저 PBR 주들로의 수급 로테이션 진행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이번주는 중앙은행 통화정책(FOMC 의사록, ECB 회의, 금통위), 매크로 지표 등 굵직한 외부 이벤트들이 산재해있는 상황. 메인 이벤트는 10 일(수) 발표 예정인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CPI)가 될 것이며, 헤드라인과 코어 CPI 컨센서스는 각각 3.4%(YoY, 2월 3.2%), 3.7%(YoY, 2월 3.9%)로 형성. 최근 연준 매파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불편함을 표시했던 것처럼, 1~2월에 이어 3월에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연준의 정책 전환을 둘러싼 노이즈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이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중시하고 있으며, 코어 CPI와 코어 PCE 모두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함. 이에 더해 전일 당사 위클리 코멘트에서 강조했듯이, 3월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라는 악재는 최근 주요국 증시의 취약한 주가 흐름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4월 이후 코스피 -1.1%, 코스닥 -5.0%, S&P500 -1.0%, 나스닥 -0.8%, 닷케이 225 -2.5%). 4월부터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분기때와 달리 2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연준의 6월 인하(or 연내 3회 인하)에 명분을 제공할 것.

이처럼 특정 지표나 재료를 주가에 미리 녹이려는 증시의 특성임을 감안해서 이번 CPI 이벤트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 시나리오로 접근해보면, 3월 CPI는 1) 컨센 하회, 2) 컨센 부합 혹은 컨센 소폭 상회, 3) 컨센 대폭 상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의 “컨센 하회”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2)의 “컨센 부합 or 소폭 상회”일 것으로 판단. 관건은 컨센을 소폭 상회하더라도 얼마까지 상회해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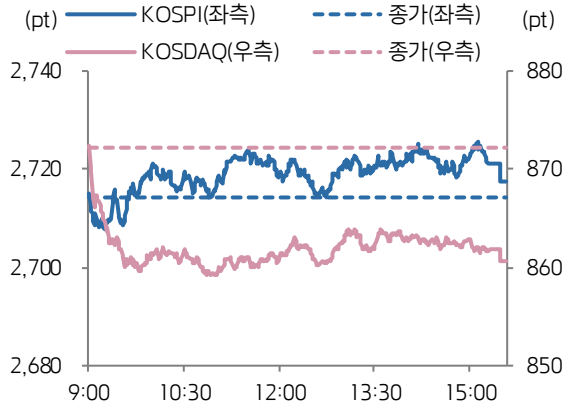
최근 수개월 동안 CPI 발표 당시 증시 반응을 참고해보면, a) 코어 CPI가 둔화된 상황 속에서 b) 헤드라인 CPI가 컨센대비 0.1~0.2%p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었음. 이를 고려 시 이번에도 코어 CPI의 둔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헤드라인 CPI가 3.6%(컨센 3.4% 대비 0.2%p)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만 유발하는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코스닥 내 바이오, 소부장 등 주력 업종의 수급 불안에도, 국내 1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증시 정책 기대감 등이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를 이끌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1.3%).

금일에는 이스라엘의 병력 철수 소식에 따른 유가 급등세 진정에도, 미국 증시의 장중 변동성 확대, 10일 국내 휴장 중 발표되는 미 3월 CPI, 22대 총선 결과 등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로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테마 관점에서는 테슬라(+4.9%)가 8월 8일 자율주행 로봇택시 출시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 반등했다는 점은 최근 낙폭이 컸던 국내 이차전지, 로봇 등 관련 테마주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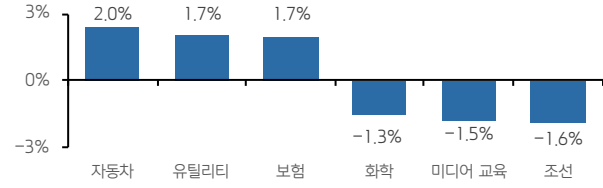
더 나아가, 업종 관점에서는 자동차, 은행, 증권 등 저 PBR 업종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이들 업종은 3월 이후 여론조사상 예상 총선 결과를 반영하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하는 등 주가 부진세를 면치 못했던 상황. 그러나 악재 기반영 인식 속 양호한 외국인 수급 여건 등으로 지난주 후반 이후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4월 4일 이후 3거래일간 누적 등락률, 코스피 +0.4% vs 자동차 +5.2%, 은행 +2.5%, 증권 +1.5% 등).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1분기 실적, 밸류에이션 및 신용 부담 해소 등으로 단기적인 추세 반전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중 남은 기간 동안 이들 업종의 주가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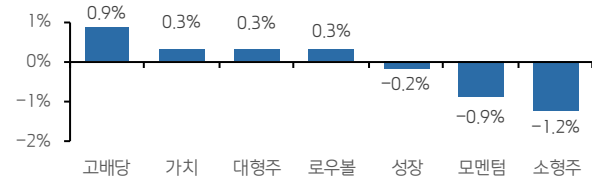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